**1. 고인의 삶**

|  |
| --- |
| **명랑 소녀 ㅇㅇㅇ 여사**  인생길 이야기    (1939.12.05~2021.10.06) **사랑과 정성으로 저희들 키워주시고**  **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.**  **말씀도 못하시고, 수저도 못 드시고, 움직이지도 못하시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일을 행하신 어머님.**  아버님을 변화시키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떻게 살며 서로 사랑하여야 하는지 가르쳐주셨습니다 |

**2. 꿈 많던 학창 시절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|  |  | | --- | --- | | 초등 시절 학예회 발표시간  노래와 춤 연극 발표 때 마다 활약, 샘도 많고 재능도 많으셨던 분 | 초등 시절 학예회 발표시간  최영섭선생이 지도하신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학창시절을  보내셨음 | |
| 어머님은 초등학생 시절 학예회 발표 시간에 3 가지 이상의 역할에 뽑히지 않으면 샘을 냈다고 하십니다. 샘도 많고 그 만큼 재능도 많아서 노래와 춤 연극 발표 때 마다 명랑소녀 강명희 여사는 활약을 하셨죠. 고등학생 시절 그 당시 ‘그리운 금강산’ 을 작곡하신 최영섭선생이 지도하신 합창단 단원으로 활동하시며 친구들과 즐거운 학창시절을 보내셨다고 합니다.    그 때 7명의 친한 친구들끼리 만든 북두칠성 클럽은 그 후 어머님의 인생길 구비 마다 함께 우정을 나누며 힘이 되어 주셨습니다. |

**3. 단란한 가정생활**

|  |
| --- |
|  |
| 고학생 아버지와 혼인, 3남매 출산 어머님이 고등학교를 졸업하시고 서울 수도계량국에 다니시던 중, 이웃집에서 하숙 하시던 가난한 실향민 고학생 아버지를 만나 연애를 하시고 1962년 결혼을 하십니다. 그 당시 아버지는 고향인 개성에서 피난 나오신 4남매 중 막내로 힘들게 고학하시며 인천에서 대학을 마치셨는데요, 아버지의 성실 하심과 선한 인상에 끌려 아버지의 청혼에 승낙하셨다고 합니다.  어머니는 초등학교 때부터 성당에 다니시며, 학창시절 수녀가 되고 싶다는 생각까지 하셨었는데, 결혼 초 각혈을 하시며 폐결핵을 앓으시는 아버지의 건강을 회복시켜 드리기 위하여 예수님 섬기 듯 섬기셨습니다.  계란 하나를 부쳐 아버지만 드렸고, 매일 상위에 놓인 돼지고기를 한점도 어머니는 드시지 않았다고 합니다. |

**4. 행복했던 순간들**

|  |  |
| --- | --- |
| [https://modo-phinf.pstatic.net/20220104_63/1641266345400S2lpd_PNG/mosarMZmzP.png?type=f130_130](https://jbasic.modoo.at/?link=2pt8klde) | **◾ 내 모든 것 다 너희들에게**  한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 드리기 위하여 당시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누나의 학교로 전화를 하여 007 작전처럼 식구들이 임진각 근처에서 만나 찍은 사진 입니다. 어머님이 아들의 팔짱을 꼭 붙 잡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셨죠. |
|  | **◾ 만능 재주꾼 어머니**  붓글씨를 특히 잘 쓰셨는데, 자식들이 초등학교 때 교실 게시판에 어머님께서 써주신 붓글씨가 있었습니다. 손주까지 기르시고 나서 이제 어머님 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서예 교실에 등록하시고 매일 한글 한자 붓글씨를 쓰시고 난을 치셨습니다. 작은 이모 붓글씨 전시회에 큰 이모와 함께 축하하러 가셔서 찍으신 사진입니다. |
| [https://modo-phinf.pstatic.net/20220104_198/1641266346391dKHhv_PNG/mosauymT6B.png?type=f130_130](https://jbasic.modoo.at/?link=2pt8klde) | ◾ 부모님과 처음으로 장거리 여행  중국 연길에 있을 때 어머님 아버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. 결혼하고 부모님과 처음으로 장거리 여행을 백두산으로 갔습니다. 그렇게 속 썩이던 아들 집에 와서 손주 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 소녀처럼 기뻐하시던 모습이 선합니다. |
| [https://modo-phinf.pstatic.net/20220104_16/1641266345988F0q3x_PNG/mosau7xV7t.png?type=f130_130](https://jbasic.modoo.at/?link=2pt8klde) | ◾ 손자 손녀 사랑의 돌봄  자식 세 명을 다 출가 시킨 후에도 손자 손녀를 사랑으로 돌보시며 자식들을 지원하셨습니다. |
| [https://modo-phinf.pstatic.net/20220104_58/16412663468708oI5e_PNG/mosaaXKzW6.png?type=f130_130](https://jbasic.modoo.at/?link=2pt8klde) | ◾ 생애 마지막 무대  어머님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동안에도 좋아하시는 서대문구 ‘노소 노소 합창단’ 단원으로 노래부르기를 계속 하셨습니다. 해마다 년 말에 서대문 구청 복지관에서 발표회를 하시는데, 2013년 단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명랑소녀 강명희 여사가 생애 마지막 무대에 오르셨습니다. |